

소설 나부랑이, 책 나부랑이

책에 대해 품은 역설적 연민

박완서

소설가

오래간만에 만난 소설 쓰는 후배가 몹시 지쳐보였다. 살도 좀 빠진 것 같았다. 나도 마침 독감을 앓고난 끝이라 반갑잖은 손님이 그 친구네도 거처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동안 단편을 한편 쓰고 냈더니 진이 그렇게 빠졌노라고 했다. 나는 “푹푹 그까짓 소설 나부랑이 쓰느라고...” 이렇게 말하다 말고 얼른 입을 다물었다. 소설나부랑이라니, 나도 모르게 소설을 그렇게 비하하고 나서 어찌나 무안하던지 주위담을 수 있는 거라면 주위어담고 싶었다. 한번 뱉은 말이 주위담아지지 않는 까닭은 형체가 없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역설적이든 직설적이든 품은 마음이 드러나게 돼있는 게 말이다. 한창 죽기 살기로 소설쓰기와 고투를 벌이고 있는 후배 앞에서까지 그 소리가 튀어나올 만큼 소설 나부랑이, 글쭉 나부랑이라는 말은 요즘 내 입술 끝에만 아니라 마음 속까지 늘어붙어 있다.

옛된 시절 몰래 읽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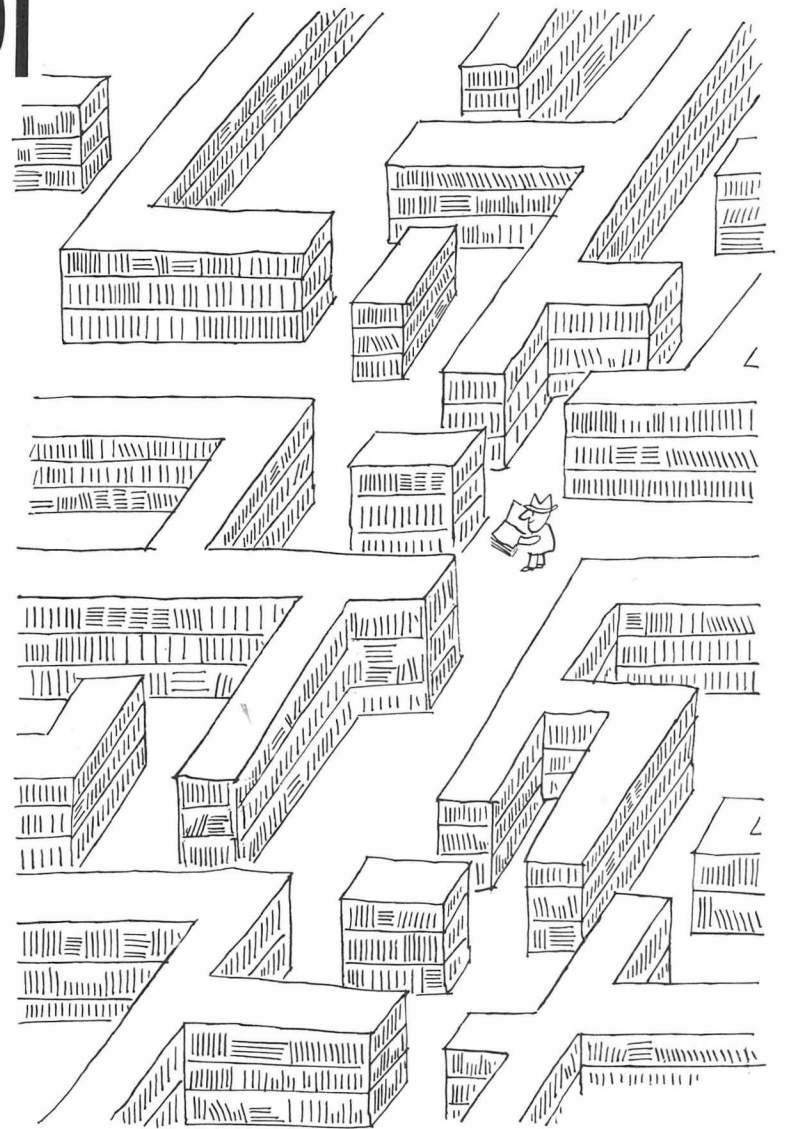
소설나부랑이라니, 내가 감히 어떻게 그 따위로 소설을 능멸할 수가 있을까. 그건 내 본심이 아니다. 그러나 전혀 본심이 아닌 것도 아니다. 가벼운 글쓰기를 즐기는 젊은 작가들한테는 웃기는 소리가 될지 모르지만 나는 소설을 아주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시작한 사람이다. 책상 위에는 교과서를 펴놓고, 책상 밑 무릎 위에는 몰래 펴놓고 읽은 이상(李箱)의 짧은 글들, 길고 긴 안나카레니나, 백치, 죄와 벌, 폭풍의 언덕, 퀴바디스, 레미제라블을 어떻게 글쭉 나부랑이, 소설 나부랑이라 할 수 있을까. 그것들은 교과서 이상의 그 무엇이었고,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아득한 곳에서 빛나는 제신(諸神)과 다름없었다. 비록 지금 늙고 무력해져 영혼 또한 아무것도 꿈꾸지 않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고는 하나, 가끔은 가슴을 단근질하듯 뜨겁게 불꽃을 일으킬 때가 있다. 그 맛에 산다고 해도 좋을 만큼 내 안에 아직도 열정이나 아름다운 부분이 남아 있다면 그건 옛된 시절 몰래 읽은 책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내 인간성에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들을 나부랑이라니, 다른 것이면 몰라도 문학에 대해 내가 그렇게 오만방자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하면 소설 나부랑이,

소설나부랑이라니, 그건 내 본심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과 말이 떠나지를 않는 게 요즘의 내 거친 심사다. 한술 더떠 책들을 함부로 내던지며 ‘이 쓰레기들’ 하며 언더리를 내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 내게 열정이 남아 있다면 그건 옛된 시절 몰래 읽던 책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글쭉 나부랑이라는 생각과 말이 나한테서 떠나지를 않는 게 요즘의 내 거친 심사이다. 한술 더 떠서 책들을 함부로 내던지면서 ‘이 쓰레기들’ 하면서 언더리를 널 적도 있다. 각종 사보를 비롯해서 거쳐 배달되는 출판물의 양이 주체할 수 없이 늘어나고부터일 것이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게 어려서부터의 고질병이긴 해도, 책을 소장하거나 진열하고 즐기는 장서취미는 거의 없다. 읽지 않을 책은 아예 두지도 않는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읽고 애정을 갖게 된 책, 앞으로 읽으려고 버르는 책, 좋아하는 작가가 보내준 책, 자료로서 필요한 책, 수시로 필요한 각종 사전류 외에는 보관할 수가 없을 만큼 내 서재는 좁다.

서재 외에 공간을 차지하게 할 수도 있지만 내 서재 정도의 넓이가 무슨 책이 어디 꽂혀 있다는 것을 내 머릿속에 대강이라도 갈무리해 두기에 적절한 공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늘릴 생각이 없다. 자연히 아무리 좋아하는 작가의 책이라도 중복되는 것은 가차없이 속아낸다. 만 것도 아니고 책을 어떻게 공간에 맞춰 소장할 수 있느냐고 내 자식들까지 엄마의 난폭한 짓을 비난하지만, 필요한 책을 찾는데 지장이 있을 만큼 불필요한 책을 갖고 있기가 싫다. 보기만 해도 배부르던 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앙이 없어진지 오래이다. 거저로도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는 활자의 물량 중에는 뜬자마자 폐지로 분류되는 것도 있고, 잠깐이라도 훑어봐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을 주는 것도 있고, 아파트 내의 작은 독서방으로



보내고 싶은 것도 있고, 읽으려고 머리맡에 갖다놓는 것도 있다. 한 열흘만 여행을 갔다 와도 그렇게 분류해야 할 물량이 어깨를 휘게 할 만큼 쌓여 있다. 그럴 땐 이 쓰레기들,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데 그 소리가 만 쓰레기를 취급할 때와는 다른 각별한 애조를 띠는 것은 어디 가서 비스한 구박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내 책에 대한 연민때문일 것이다.

어디서 구박받는지 모를 내 책

내 소설한테라고 소설나부랑이라는 소리를 안하는 게 아니다. 실은 소설나부랑이라는 고약한 말버릇은 내 소설로부터 비롯됐다고도 볼 수 있다. 이제야 소설이 뭔지 보이기 시작한다고나 할까. 남의 책에서도 함부로 써갈긴 거나, 돈 될 구리만 했으면서도 상품을 만들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고통도 없이 다만 잔재주만 부린 것이 그렇게 잘 보일 수가 없다. 그럴 때도 소설 나부랑이라는 구박을 거침없이 하게 되지만, 죽을 맛으로 어렵게 쓴 내 소설한테 가는 바람이 기껏 활자공해나 안됐으면 전전공공하는 게 고작일 때도 이까지 소설나부랑이 만들려고 그 고통을 했나 하는 자탄의 소리를 하게 된다. 남한테

하는 그 소리는 속 시원하지만 자기모멸은 참담하다. 소설가라고 불리기 시작한지가 이십오년째 된다. 만 기술을 익혔다면 숙련공이 되고도 남을 기간이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게 이 짓엔 숙련이라는 게 없다. 생판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고통은 매번 생급스러워 다시는 안하고 싶어진다. 소설의 그 숙련을 허락하지 않는 오만함이 알미워서 제까지 소설나부랑이가 뭐관테, 하고 우습게 여기는 척이라도 해야 건뎐다.

나는 그러면서 남이 그러는 것은 듣기 싫은 것은 또 무슨 심사인지. 나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더라도 은근히 글 쓰기를 얕잡거나 우습게 여기는 소리를 누가 하면 즉시 발끈해진다. 그 또한 자각지심 때문일 것이다. 이를테면 분량이 얼마 안되는 잠문 같은 걸 부탁하면서 이쪽에서 내키지 않아 하거나 시간이 없어 거절을 하면, 그까짓 여남은 장 앉은 자리에서 쓰실 분이 될 그러느냐고 핀잔을 주는 사람이 있다. 나는 그 소리가 왜 그렇게 모욕적으로 들리는지 모르겠다. 여남은 장쯤 앉은 자리에서 쓸 수 없는 열등감 때문인지도 모르고, 내 글만은 실사하듯이 써갈긴 글하고는 다르게 취급받고 싶은 가당찮은 자존심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저 푸른 망아지 같던 시절의 책읽기

시인의 길로 이끈 젊은 날의 책읽기

이가림

인하대 불문과 교수·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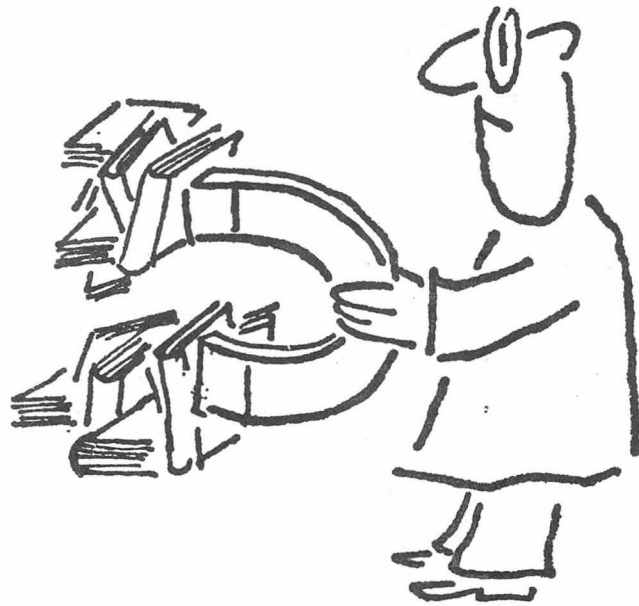
아스라한 과거 속으로 나있는 시간의 철길을 따라 한 30년쯤 되돌아가노라면 운동주의 자화상같은 소년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만나게 된다. 솔방울 마크의 모포에 흰띠를 한줄 두른 모자를 쓰고 질푸른 전나무가 있는 교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일부러 허리를 구부리는 풀잎처럼 그렇게 내일 쪽으로 내일 쪽으로만 얼굴을 향한 채 그 소년은 가고 있는 것이다. 푸르게 빛나는 젊음의 열기를 뿜어내면서 밝고 넓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 능름히 걸어가는 것이다.

아아, 과거 속의 영상은 언제나 사람을 못 견디게 하는 무엇인가 그리움으로 가득차게 만드는 비밀이 있는 것인가. 장 콥토같은 천재의 날카로움과 번득임을 좋아했던 야망의 시절, 문제의 소나기가 쏟아지는 광장 한복판에 맨발로 뛰어든 저 순진성뿐인 망아지같은 소년시절을 나는 결코 감탄사 없이 회상할 수가 없다.

닥치는 대로 읽던 번역서

고등학교 1학년 무렵부터 나는 '이유없는 반항'이 짝뿔, 수업료를 가지고 한주일 동안 목포를 거쳐 제주도까지 갔다 오는 가출을 감행하는가 하면, 대학입시 위주의 학업전선에서 한걸음 물러난 보다 자유분방한 왕국에서 홀로 은밀한 꿈을 키우고 있었다. 한편 독일어를 가르치시던 선생님께서도 특별히 개인지도를 받아 헤세의 《페터 카멘친트》, 릴케의 《로댕》의 어떤 구절을 원서로 해석할 정도에 이르는 괴팍한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2학년 여름방학 때에는 불문학을 전공하는 한 선배로부터 다른 두 친구와 더불어 불어를 배웠다. 낯선 외국어를 배우는 신기함도 있고 대학에 가서 프랑스문학을 전공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졌던 터라 꽤 열심히 했다.

그즈음 막 나오기 시작한 양문문고판과 위성문고판의 번역서들을 닥치는대로 읽으며 괴테의 《파우스트》,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뒤마의 《삼총사》, 로맹 롤랑의 《장 크리스토프》, 스탕달의 《적과 흑》, 생텍쥐페리의 《인간의 대지》,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 카프카의 《성》, 지드의 《젊은 문》, 까뮈의 《이방인》 등 을유문화사와



정음사, 동아출판사의 세계문학전집을 거의 다 읽었다. 뿐만 아니라 김소월, 한용운, 윤동주, 김영랑의 시집을 비롯해서 신석정의 《촛불》과 《슬픈 목가》, 정지용의 《정지용시집》과 《백록담》, 서정주의 《화사집》, 《기상도》 등을 구해서 낭송을 해가며 읽었다. 특히 《정지용 시집》과 《기상도》는 국어를 가르치시던 신석정 선생님께서도 빌려다가 필사하여 내 나름대로 신선하게 읽혀지는 구절을 밑줄까지 쳐가며 외우기도 했다.

나는 또한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나 쇼펜하우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며 은근히 기고만장한 조숙성을 자랑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지간히 치기만한한 것거리를 잘도 했었구나 하고 부끄러운 느낌이지만, 그러나 그때는 선생님들이나 선배들, 어른들의 말이 시시하게만 들렸고, 어쩐지 훈육주의의 잔소리 같은 것으로만 들렸던 것이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반 고흐를 능가하는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일요일에는 어두컴컴한 골방에 틀어박혀 캔버스와 장난을 하는가 하면, 겨우 이름만 알고 있던 랭보의 《취한 배》를 능가하는 상상력의 기적을 뿜어내리라고 원고지와 서투른 씨름을 하기도 했다.

어쨌든 나는 판에 박은 규격품처럼 자라기를 싫어했고, 조금은 건방진 나의

아스라한 과거 속에 푸른망아지 같던 소년이 있다. 그즈음 나오기 시작한 번역서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처음 시가 주는 신선한 충격을 알게 된 것은 고교시절 장 콥토를 만나고서부터다. 미술적인 이미지의 기묘한 매력에 이끌려 아마도 시인의 길을 걷게 되지 않았나 싶다.

의지대로 걸어가고자 했다. 비록 이러한 꿈의 선택이 내 위험스런 개인의 문화사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어찌 푸른 보리가 소낙비를 두려워 하랴'고 속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결국 나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욕심쟁이 기질 때문에 내 되찾을 길 없는 소년의 에네르기를 여기저기 소모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시가 주는 신선한 충격에 대한 기억

그러나 아스라한 과거 속의 내 영상은 왜 이토록 아름답지만 한가. 사람은 아무리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추억일지라도 자신의 과거를 아름답게 색칠하지 않고는 못견디는

모양인가. 나는 자꾸만 떠오르는 장 콥토의 '무서운 아이' 같은 모습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시가 주는 신선한 충격을 알게 된 것은 고교시절 어느 헌 책방에서 우연히 사게 된 증역판 《불란서 시집》 속에서 몇 편의 짙막한 장 콥토의 시들을 읽고나서였던 것 같다. 특히 '내 귀는 소라껍질/바다소리를 그리워한다' 라는 2행밖에 안되는 '귀'라는 시는 산뜻한 매력으로 내게 다가왔던 것이다. 이러한 첫 인상이 너무 뚜렷이 박혀버린 탓인지 지금에 와서도 시인으로서의 장 콥토의 모습은 총명하고 능란한 말의 묘기를 보여주는 마술사라는 느낌이 든다.

장 콥토는 시인으로서, 소설가로서, 문학비평가로서, 배우로서, 극작가로서, 연출가로서, 영화제작자로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폭넓은 활동을 했다. 그러나 무슨 일에 매달리든지 간에 장 콥토는 본질적으로 시인이었다. 그가 쓴 소설은 시인의 소설이며, 그가 쓴 평론은 시인의 평론이며, 그가 만든 영화는 시인의 영화인 것이다. 그 자신 이러한 점을 명확히 의식하여 자기의 작품을 명명할 때도 반드시 시, 소설의 시, 평론의 시, 각본의 시, 회화의 시라는 말을 사용하였으며, 간단히 시, 소설, 희곡, 평론, 회화 등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의 시는 고등수학과 같은 엄밀히 계산된 구조의 단단한 것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장미꽃, 파이프, 비둘기, 기타, 부채, 비누방울, 천사 등의 단순한 이미지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소박한 것임을 알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사물의 겉모습만을 그려나가는 소모적으로 깎보아서는 안된다. 말할 것도 없이, 시인이 이미지의 결합을 통해 시를 쓴다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장 콥토의 경우처럼 미술적으로 잘 씌어진 예는 그리 흔치 않다. 그의 시의 수학적 정밀성은 이미지의 사용 방법이 매우 엄격한 데서 온다고 볼 수 있다.

내가 시인으로서의 길을 걷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를 든다면, 아마도 장 콥토의 시가 주는 기묘한 매력에 끌려 나도 그런 번득이는 천재성의 시를 써서 주목받고 싶다는 욕망과도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